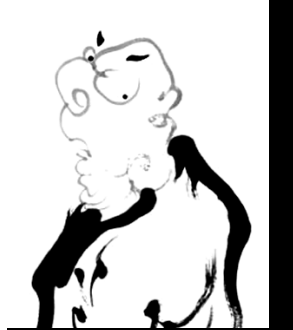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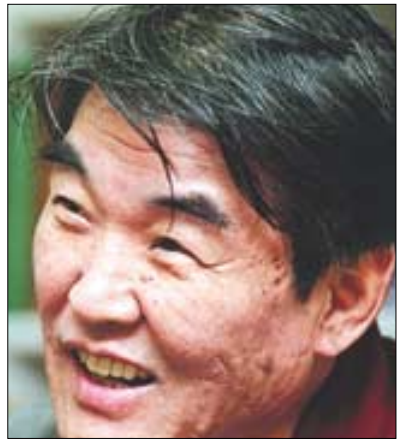


김지하 詩人の 달마 · 생명 · 불교에 대해 듣는다

목마른 이시대 유머가 필요하다

직접 그린 달마 100여점 전시(3월 2~13일, 인사동 학교재)



그 언제 어디에서건 '타는 목마름으로' 삶을 뜨겁게 노래했던 시인 김지하. 70년대에는 수없는 투옥을 거치면서도 불퇴전의 민주투사로, 80년대 이후에는 생명운동가로 그 어디에서나 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치열함을 보여준 김지하. 그런 그의 열정이 화선지 위에 거칠고도 익살스러운 먹의 흔적으로 남았다. 김지하 시인은 25년 동안 중국 선종 초조 달마 스님을 그려왔다. 보편화된 달마 그림과 달리 그의 달마에는 의상, 기쁨, 슬픔 등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24주간 연재되는 동안 네티즌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선사하며 인기를 끈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유자재로 선기를 드날렸던 달마 스님을 통해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신의 달마 그림을 100여 점 모아 놓고 생애 첫 달마전(3월 2~13일, 인사동 학교재)를 여는 김지하 시인을 2월 15일 일산 자택에서 만났다.



김지하 시인은 연습하고 딱딱한 달마보다는 유쾌하고 익살스런 달마를 그린다.

왜 '달마도' 인기?
독방에 죄수를 5년 이상 가두지 않는 것은 감옥의 불문율이다. 실성을 짐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치를 나름대로 설정한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7년의 세월을 빈벽과 마주하고 견뎌냈다. 참선 덕이다. 엄혹한 특수 격리 기간이 5년째로 접어들던 당시, 나는 참선에 대한 책을 닦치는대로 읽은 후 수행을 시작했다.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안이었다.

80년대 초 형집행정지로 출감하면서 몸은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시대와의 불화는 마음의 자유를 허락지 않았다. 그때부터 난과 달마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특히 연담 김명국 선생의 달마도를 접한 이후 달마의 자유롭고 여여한 정신세계에 매료돼 먹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연습하고 딱딱한 달마보다는 생명력이 충만한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달마를 많이 그렸다. 계

운이 느낄 수 있다. 25년 간 생명 운동을 이끌어 온 시인의 사상과 '달마도의 氣'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달마도 자체의 맑은 기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필로 뿜은 붓질 자체, 먹 안의 비백(飛白) 안에는 그런 이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영성과 내가 강조하는 생명은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생명·평화 운동의 맨 앞에서
대안 이론을 모색해오던 부담을 벗고 시인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연재된 24편의 달마 그림과 화제(畫題)에 대한 소고 역시 그 활동의 일환인 듯하다. 연재된 그림과 글에는 생명 사상에 대한 불교적인 이해가 돋보였다. 시인이 말하는 '생명'과 '불교'는 어떻게 달아있나.

달마의 자유롭고 여여한 정신에 매료 붓질의 영성과 '생명' 둘일 수 없어 '집단적 참선' 사회변혁 가져올 것

술이 얽힌 절집에 도리어 우스개가 많듯이, 뭔가 까다로운 기강이 요구되는 이 시절에는 유머가 더욱 요청되기 때문이다.

달마도는 그런 이의 수행력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한다.

난을 치는데 있어서 붓을 잡은 이의 마음과 붓끝의 뜻은 같지만, 붓이 그 마음을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마음은 난초잎의 끝을 지나 더 깊고 크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밖으로 뿜은 난초의 끝에 다달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달마를 담아왔다.

나의 달마 그림으로 수행력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시적 언어로 풀어줄리기도 힘든 마음을 묵향으로 다스려온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수양의 한 방편이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이 그린 달마도에서는 어느 그림과 달리 맑고 강한 기

운이 느껴진다. 25년 간 생명 운동을 이끌어 온 시인의 사상과 '달마도의 氣'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달마도 자체의 맑은 기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필로 뿜은 붓질 자체, 먹 안의 비백(飛白) 안에는 그런 이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영성과 내가 강조하는 생명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논하는 선도풍류, 동학 등의 사상을 '운동자'라고 표현한다면 불교는 '망막'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개승 등을 인용한 화제를 보니 서산 스님 등의 선사(禪詩)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

감옥에 있을 당시 서산·경허·진묵 스님 등의 선사시를 100여 편 넘게 외우고 있었다. 특히 서산 스님의 '꽃이 지는데 절집은 오래

달려있어 봄을 찾는 나그네 돌아갈 길 모른다. 바람은 학 동우리를 흔들고 구름이 좌선하는 곳에 찾아온다'라는 시는 요즘도 되뇌는 찬사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무심한 선객의 옷자락에도 구름이 스며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3천 명이 넘는 시인 가운데 천 이백 명 가량이 생애시인이고 그들 가운데 70% 이상이 불교에 기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평소 '요기싸르(요가수행자를 의미하는 yogi와 혁명위원회)를 뜻하는 cominssar를 합친 말)'를 표방해 온 시인이다. 안으로는 요기처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사회적 변혁을 꿈꾸는 요기싸르의 정신을 달마 그림에 대한 소고에서 엿볼 수 있었다.

선불교는 일상적인 논리를 벗어난 어법으로 직관적인 깨달음을 준다. 화두를 담은 화제를 통해 일상의 작은 고민과 의상이 우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 했다.

삶과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진리탐구 행위인 '화두참구'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요구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집단적 참선'이 사회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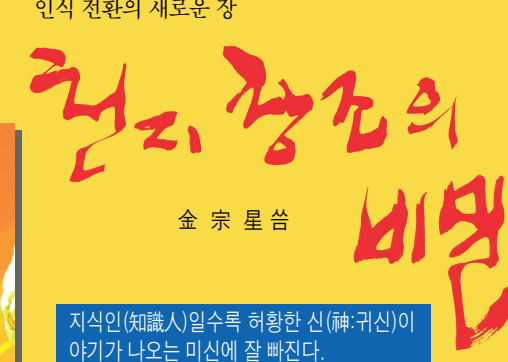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참어불교와 생명 운동의 길이 둘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최근 지을 스님이 단식으로써 천성산 관동터널 공사 중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옛날 분산정국에서 '자기자신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죽음의 굶판을 건너치워라'라고 일갈했던 시인인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속세의 상식으로 성직자의 단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듯하다. 절집 안에서의 단식은 수행의 한 방편이고, 도량농을 넘어서 티끌 하나 까지도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수행자다. 불가지론으로 빠지기 전에 불교계 내부 입장의 전면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했던 세만급습 관련 삼보일배 권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식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책!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많으면 국운(國運)이 왕성해진다. 왜냐하면 민족이 미신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운이 쇠약해진다. 사람에게 혼(魂)이 없으면 죽는 것이요 나라의 국魂(國魂)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국혼이 있는가?



인식 전환의 새로운 장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이 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플라톤을 하나도 잘못 알고 이를 轉述(轉述)하는 것처럼 원시대에 UFO(우주선)를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케렌과 비라라 비랄라 비도덕적 괴리로 뒤바뀌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늘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전연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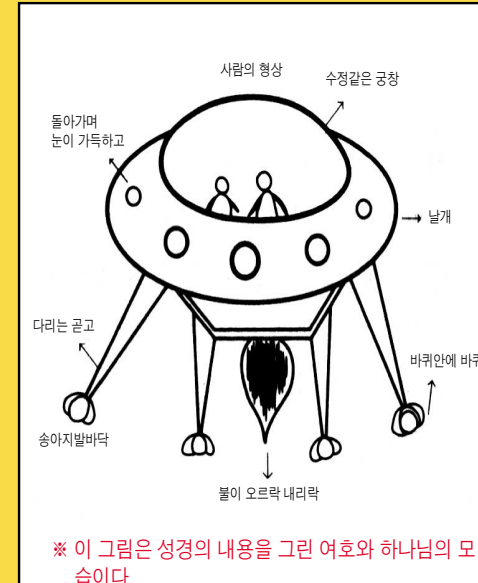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오.

UFO(외계인)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석(석덩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 바퀴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바퀴같이 빠르다.
- ▷ 수평같은 공장이 있다.(돔(dome)같은 동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썩:트분사)
- ▷ 궁형같이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니뭇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권·心

(만의 위대한 힘)

만성지음

권의 최종 해설서

권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권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